

numbers 제 43호



주요 내용

2020. 04.17

1.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2. ①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② 한국인의 의심병
③ 넘버즈 컬럼 _ “신기술의 역습: ‘n번방 사건’이 제기하는 우리 시대의 도전”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20 일반사회통계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방역 당국의 노력에 대해 해외 호평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내에서도 긍정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나가느니 차라리 한국이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헬조선'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 과거 재난을 당할 때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볼 때 놀랄만한 일이다.

이런 연유로 최근 한국 사회 신뢰도가 오르고 있다.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에서 '한국 사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51%가 '신뢰한다'고 답했는데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신뢰도는 61%로 상승했다. 사회적 신뢰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각 영역에서 갈등 관리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43호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변화와 일반 국민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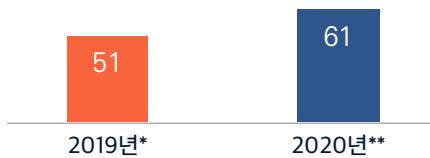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10%p 올랐다!

-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대해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61%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때 51%보다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조사 방법과 표본수에 유의)

[그림] 한국 사회 신뢰도 (%)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결과' 2019.11.25, (전국 만 13세 이상 약 3만 7천 명, 대면 조사, 2019.05.15~30)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신뢰', 2020.04.08,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20.03.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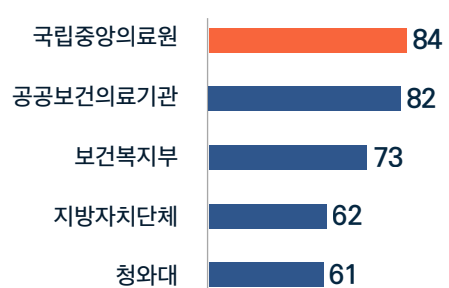
● 사회적 신뢰도 상승 요인, 1) 정부의 권고에 따른 자기 의무 실천이 매우 강했고 2) 공적 방역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냄

- 사회적 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질문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자제(89%)', '필요한 마스크 구매'(76%) 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실천에 옮겼고, 한편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각 공적 영역의 방역 당국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질문했는데 80% 안팎의 높은 신뢰도를 보임
- 공적 영역의 방역 당국 신뢰도는 지난 3월 4일 조사 때보다 모두 상승한 결과로, 여러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비판이 높았던 과거와 비교하면 큰 변화임

[그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실천한 행동들 (중복 응답)* (%)



[그림] 공적 영역의 방역 당국 신뢰도 (매우 신뢰+다소 신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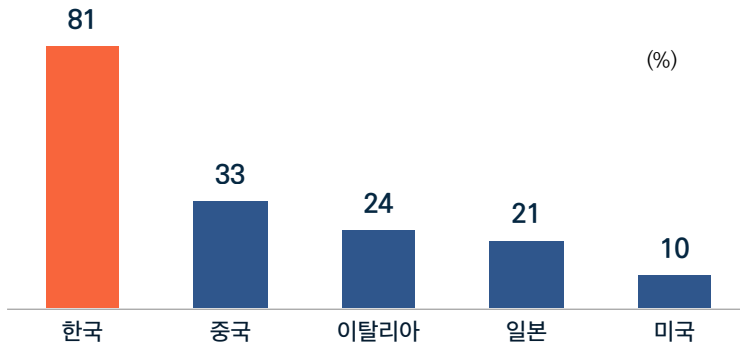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신뢰', 2020.04.08,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20.03.11~16)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조사 3차' 2020.03.3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20.03.25~28)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수준, “다른 나라보다 높다” 81%

- 한국, 중국, 이태리, 일본, 미국 등 5개국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비교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 중 7점 이상 비율을 보면, ‘한국’이 81%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중국’ 33%, ‘이탈리아’ 24%, ‘일본’ 21%, ‘미국’ 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개국 코로나19 대응 수준 평가 (다른 나라에 비해 대응 수준 ‘높다’ 비율**)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조사 3차' 2020.03.3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20.03.2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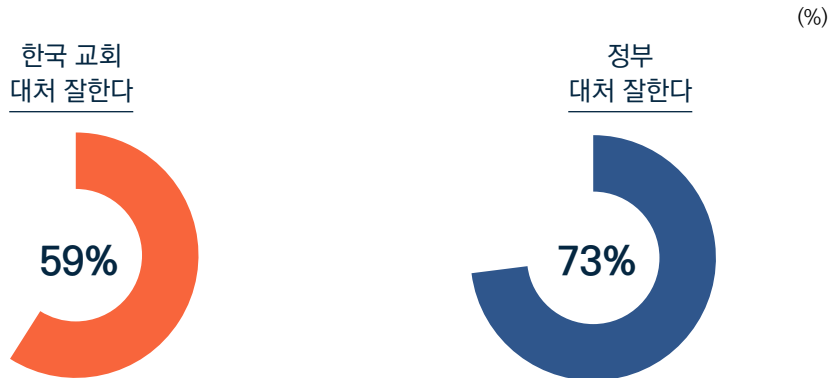
** 10점 척도 질문으로, 7~10점 비율임

2

개신교인 코로나19 대응력에 대해 한국 교회보다 정부를 더 높게 평가함

-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질문한 결과, 5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73%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정부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개신교인들이 평가하는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교회와 정부의 대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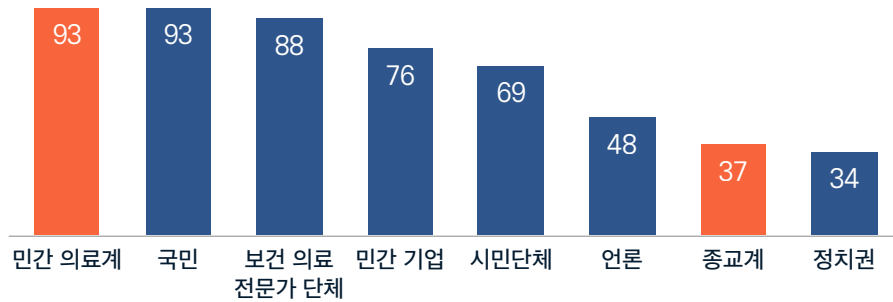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 2020.04.09. (전국 만 18~69세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2~6)

● 종교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 정도, 각 사회 주체 중에서 정치권과 함께 최하위 평가 받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정도에서 종교계는 37%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음

[그림] 민간 영역 사회 주체별 코로나19 극복 노력 정도('노력하고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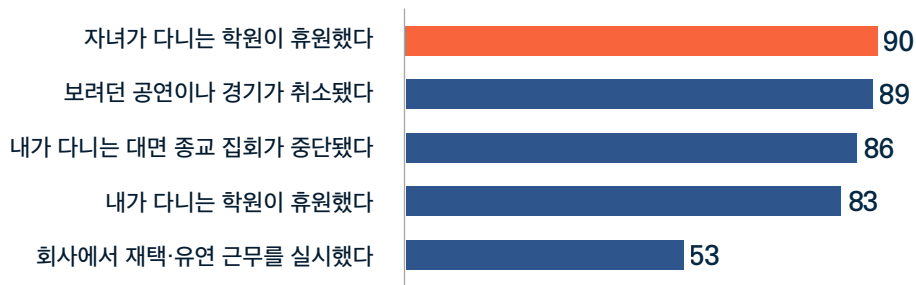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신뢰', 2020.04.08,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20.03.11~16)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간 기관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함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권유에 따라 대부분의 학원, 공연, 스포츠 경기, 현장 종교 집회가 중단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남
- 직장인들의 재택·유연 근무 비율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민간기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동참(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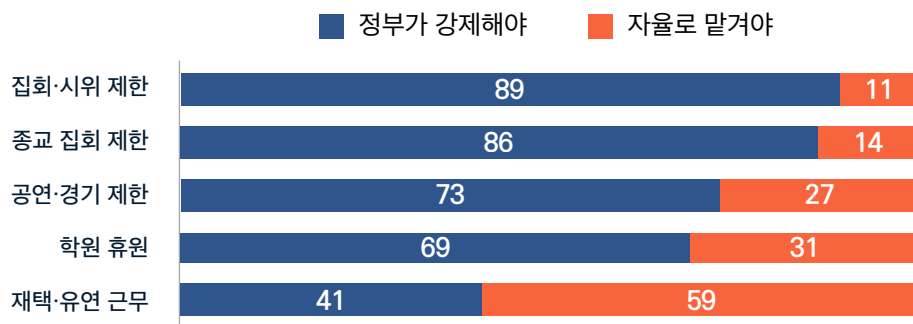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신뢰', 2020.04.08,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20.03.11~16)

4 국민들은 정부가 강제로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 분야로 ‘집회·시위’와 ‘종교 집회’를 비슷하게 인식함

- 민간 부문의 주요 활동들을 제시한 후 각각에 대해 정부가 강제 제한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집회·시위 제한’(89%)과 ‘종교 집회의 제한’(86%)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민간부문의 주요 활동들에 대한 정부 강제 제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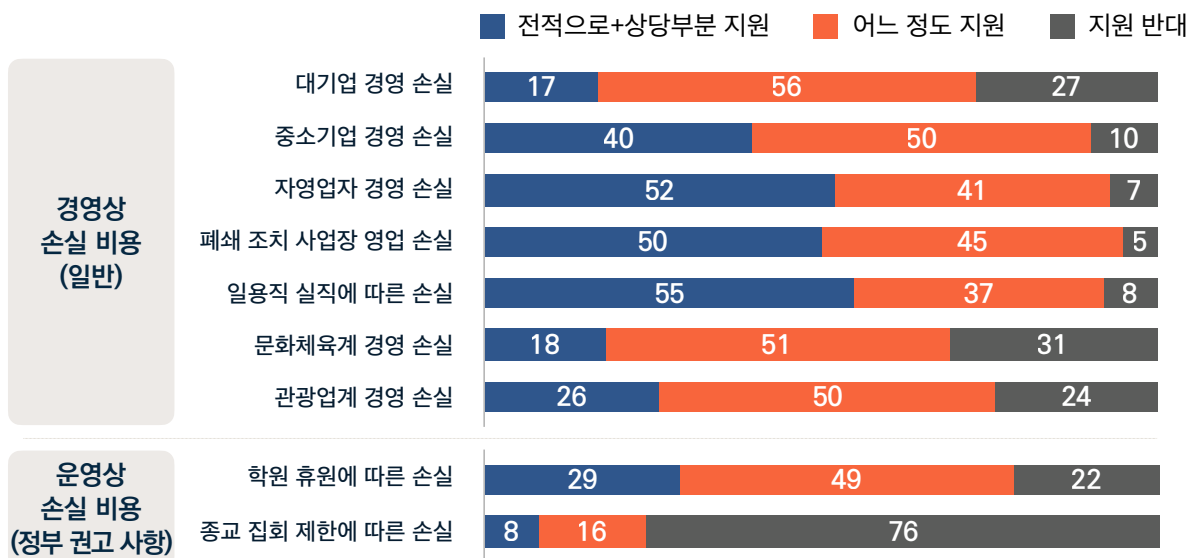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신뢰', 2020.04.08,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20.03.11~16)

● 활동 제한으로 인한 정부의 손실 비용 지원, 국민은 종교 기관 지원에는 반대(76%)

-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영업자와 일용직 실직에 따른 손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 권고로 인해 제한을 받은 학원과 종교 집회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한데, 학원의 경우 ‘일정 부분 이상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78%에 달하는 반면, 종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반대한다’가 76%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단 감염과 물의를 일으킨 개신교계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림] 기업/기관의 경영상 손실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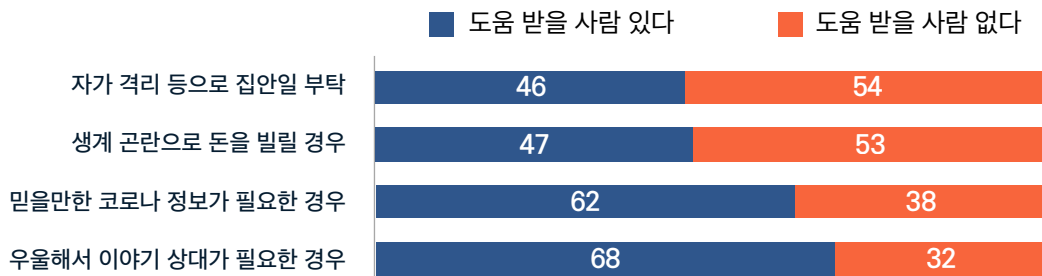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신뢰', 2020.04.08,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20.03.11~16)

5 코로나19로 집안일/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반 이상의 국민, '도움 받을 사람 없다'

-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등으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없다'는 응답자가 54%나 됨
- 또한 생계 곤란으로 돈을 빌릴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는 비율이 53%로 절반 이상임
- 따라서 코로나19로 집안일/경제적 문제 시 절반 이상의 국민이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해결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위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코로나19로 어려움 처했을 때 도움 받을 사람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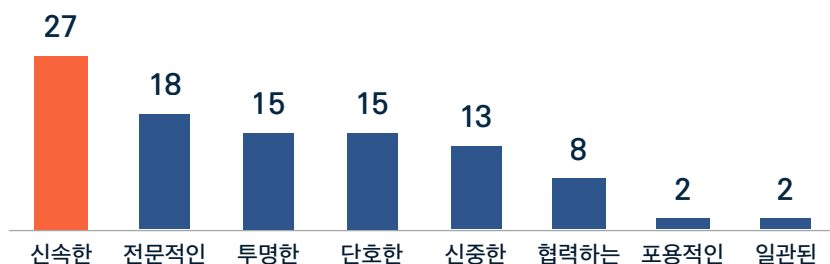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신뢰', 2020.04.08,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20.03.11~16)

6 지도자가 신뢰를 얻기 위한 리더십 요소, '신속한 리더십' 1위

-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인들은 지도자들이 신뢰를 얻기 위한 리더십 요소로 '신속한' 리더십(27%)을 가장 높게 지적했고, 다음으로 '전문적인'(18%), '투명한'(15%), '단호한'(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번 방역 당국의 대응 전개를 보면서 국민은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에게 맡긴 성과가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조사 결과 나타난 신속성·전문성·투명성 등의 리더십에 대해 정치권이나 교계 리더십이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지도자가 신뢰를 얻기 위한 리더십 요소 (%)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조사 3차' 2020.03.3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20.03.25~28)

7 시사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던 서양 사회가 실은 우리보다 나은 게 없는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서양에서는 우리에게 없던 '사재기'가 만연했다는 사실이다. 대형 마트에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식료품, 휴지와 같은 생필품이 동나서 텅 빈 매대를 언론매체에서 보면서 그렇지 않은 우리 사회에 대해 부딪함을 우리는 모두 느꼈다. 그렇다면 왜 선진국인 서양은 사재기로 난리였는데 우리는 '사재기'가 없었을까?

서양은 개인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사회로서 위험에 대한 대처를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맡겨 놓음으로써 위험을 각자 도생의 형태로 대처하게 하였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결과가 '사재기'이다. 이 점을 가리켜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자신의 책 「위험사회」에서 현대 사회의 위험은 개인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울리히 벡은 해결책으로 소통을 강조했다. 사회적 소통은 신뢰와 협력의 바탕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회적 소통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울리히 벡이 언급한 시민적 참여를 가장 잘 보여 준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우리의 시민적 실천이다. 우리는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공동체적 시민의식과 정부의 민주적인 대응에 적극 호응하였다.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3쪽)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5쪽)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산업 사회를 지나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가 고도화되고, 심지어 남과 단절된 '나홀로 라이프'에 빠져 있다고 탄식하였지만, 실은 우리 의식의 밑바닥에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멋지게 발휘된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과 희망을 다같이 느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시민적 실천에 대해 온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였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시민으로서 참여와 연계는 두드러졌지만 사회적 연대에서 소외된 계층이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집안일/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반 이상의 국민이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7쪽). 이러한 현상은 가족 구조의 변화, 사회적 복지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 빚어진 현상인데, 교회가 사회적 제도 부재의 빈틈을 메워 줄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교단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거나, 임대료를 못 내는 소형 교회에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목회자에게 긴급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교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4쪽-5쪽).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채우지 못하는 빈틈을 교회가 찾아서 메워 줄 때, 교회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할 일이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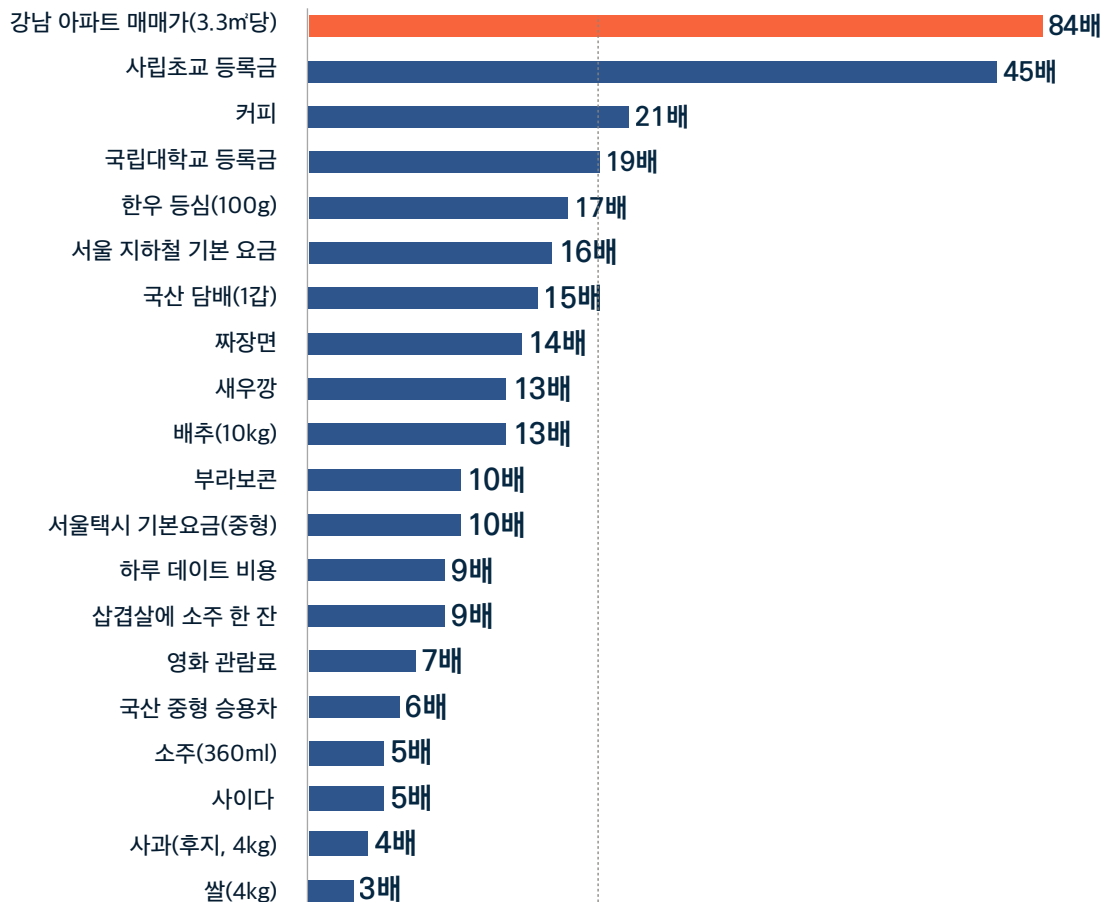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 40년간 모든 물품/서비스 중 ‘강남 아파트’가 84배로 가장 많이 올라

- 1990년~2020년까지 40년 간 강남 아파트 매매값(평당)이 77만 원에서 6,468만 원으로 84배 상승했는데, 이는 국내 모든 물품/서비스 중 가장 많이 오른 금액임(명목 가격 기준).
- 40년 간 국민 1인당 GDP(달러 기준)는 19배 정도 상승했는데 강남 아파트는 GDP 상승률을 크게 앞지른 것임
- 40년 간 대부분의 물품/서비스 가격 상승률이 GDP 상승률보다 낮아, 전반적인 실제 물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실제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41,000달러로 사상 처음 일본의 40,800달러를 추월함)
- 1인당 GDP(달러기준)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은 아파트 외에 교육비, 커피 정도임

[그림] 40년간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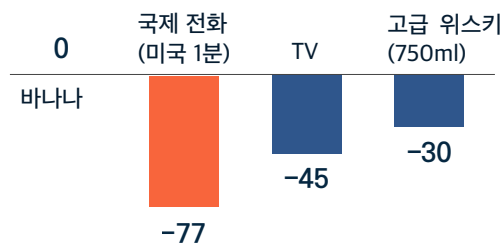
1인당 GDP : 19배 상승(달러 기준)

*자료 출처 :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내 주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추세 분석 : 1980~2020', 2020.03.29.

● 반대로 국제전화, TV 가격은 오히려 떨어짐

- 대체재의 대중화로 국제전화 요금은 40년 동안 무려 77% 하락함
- 또한 기술의 진보와 생산성 증가로 TV의 명목 가격은 45%하락함
- 바나나 실컷 먹어보는게 소원일 때가 있었는데 바나나 가격의 40년 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바나나 가격은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한 셈임

[그림] 40년간 가격이 동일하거나 하락한 물품/서비스 하락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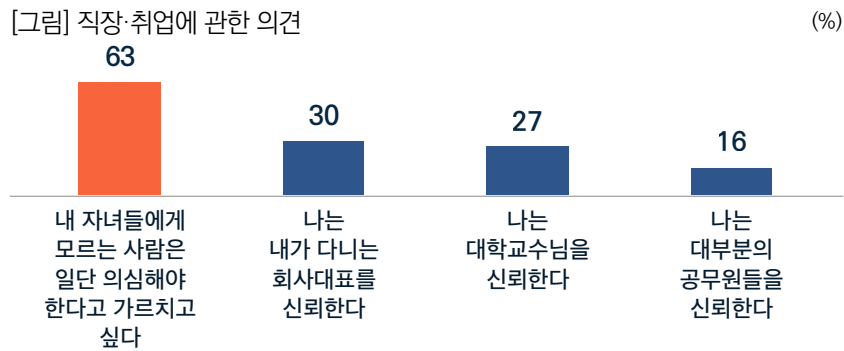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내 주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추세 분석 : 1980~2020', 2020.03.29.

2

한국인의 의심병

● ‘내 자녀에게 모르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라고 가르치고 싶다’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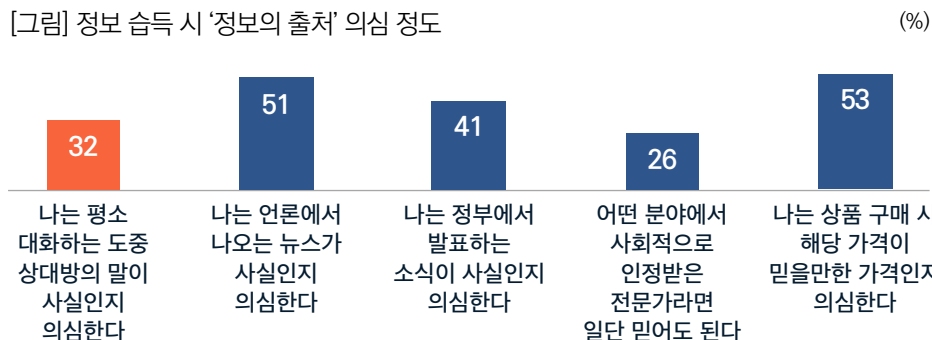
- 한국인은 대부분의 직업인에 대해 심지어 전문가들도 잘 믿지 못하는데, 어떤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도 50%를 넘지 못함
- 즉 각각의 신뢰도를 보면, 회사 대표 30%, 대학교수 27%, 공무원 16% 등임.
- 이러한 불신 문화는 자녀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 ‘내 자녀들에게 모르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다’에 대해 63%가 ‘그렇다’고 대답함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사회적 신뢰 관련 인식 조사", 2020.02.12, (전국 만 20~59세, 온라인 조사, 2,000명, 2020.02)

● 한국인의 의심병!

- 평소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32%로 나타났는데, 3명 중 1명 정도는 대화하면서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를 습득하는데 정보의 출처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언론의 뉴스의 경우 절반(51%)이 사실인지 의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라면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6% 밖에 되지 않음, 또한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41%가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사회적 신뢰 관련 인식 조사", 2020.02.12, (전국 만 20~59세, 온라인 조사, 2,000명, 2020.02)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현황 발표](#)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_2020.04.16

“최근 2주간 전파 경로 : 해외유입 54%, 병원 22%”
- 

[서울시, 4월 19일 생활 방역 전환 여론 조사 결과](#)

한국일보_2020.04.14

“이달 19일 생활방역 전환에 서울시민 64% ‘시기상조’”
- 

[‘코로나 블루’\(코로나로 인한 우울함, 무기력증 등 심리적 이상 증세\) 경험을](#)

한국일보_2020.04.14

“성인남녀 절반 이상 ‘코로나 블루 경험’”
- 


[코로나19 소상공인 업종별 피해 규모 \(빅데이터 분석\)](#)

시사인_2020.04.13.

“코로나19 덮친 서울 7주 만에 1.6조원 증발”
-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 OECD 중 한국 경제성장률 1위 예상](#)

세계일보_2020.04.15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OECD 1위’ 전망”
- 

[초성체 사용 습관의 세대별 차이](#)

조선일보(아무튼, 주말)_2020.04.11


“ㅋ·ㅋㅋ·ㅋㅋㅋㅋ… 나이 따라 자리 따라 ㅋ 개수가 다릅니다”
- 

[X세대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주의 세대', 이들이 이번 선거판도 갈랐다!](#)

조선일보_2020.04.17

“3040세대의 표심”

스토리가 있는 기사

- 

[총선 피드백_신문 사설](#)

조선일보_2020.04.16

“기록적 與 압승, 전례 없는 이 힘을 국민 위한 정책 전환에 쓰길”

한겨레_2020.04.16

“180석 민주당, 낮은 자세로 ‘경제난 극복’ 힘 모아야”

넘버즈 칼럼

신기술의 역습: 'n번방 사건'이 제기하는 우리 시대의 도전

손화철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교수

1996년 벨기에에는 마르크 뒤트루(Marc Dutroux)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떠들썩했다. 6명의 아이들을 납치해 가두고 성적으로 학대하여 그중 네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는데, 이후로도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수사 당국에 대한 불만이 오랫동안 벨기에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다. 당시 벨기에로 막 유학을 떠났던 필자는, 아동 성 착취 문제에 놀라기도 했지만 유럽에서 그 역사가 매우 길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럽의 부유층 중에는 동남아에서 아이들을 들여와 사냥터에 벌거벗긴 채 풀어 놓고 사냥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간의 변태적 욕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기간 현실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야기들이 날마다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소위 'n번방 사건'은 그 사건 자체뿐 아니라, 그 사건을 접하는 우리의 미묘한 관음증을 드러내기에 더욱 불편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동들의 학대 장면을 보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에 혀를 차는 독자들도 관련 기사들에 묘사된 자극적인 내용을 즐기고 있는지 모른다. 기사를 클릭하는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가짜뉴스 보도도 서슴지 않는 우리나라의 저열한 언론이 총선 관련 기사보다 10배나 많은 n번방 기사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자 방송)이 그 은밀한 방증이다. 이 사건은 충격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최근 시작된 일이 아니고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일이다.

문제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악한 생각이 마음껏 현실화 될 수 있는 공간이 기술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가 많은 유익을 얻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는 권력과 힘이 있는 소수에게만 허용(?)되고 제약이 많았던 악행이, 이제 광범위하고도 손쉽게 행해질 수 있는 장이 열렸다. 모두가 접근 가능한 인터넷, 가학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찍어 올릴 수 있는 휴대 전화, 그렇게 디지털 상태로 만들어져 무한 복제가 가능한 정보, 개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SNS와 가상화폐 등 이번 n번방 사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첨단 기술이 있다. 사실 이번 사건이 더 극악했을 뿐, 정보소통기술(ICT)은 그 상용화 초기부터 성적 착취와 방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고, 심지어 그런 산업들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첨단 정보소통기술은 단순히 과거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보고 듣는 대상과 시간적 공간적으로 괴리되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둔감하게 만든다. 전쟁과 공포를 직접 경험한다면 끔찍하겠지만, 그것이 실제 상황이라 하더라도 화면을 통해 보게 되면 나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는 삶과 죽음이 갈리는 현상이, 나에게서는 그냥 생생한 볼거리가 되고 만다. 미국의 뉴스 방송인 CNN이 이라크 전쟁의 생생한 보도를 통해 주요 방송사로 떠오르게 된 것이나, n번방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드나들게 된 것이나, 또 그 피해자들에 대한 악플을 올리면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나 그 구조는 동일하다.

기술이 사람을 둔감하게 만들었고 사람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n번 방 사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힐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의 잔인함에 얼마나 관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다. 과거에도 잔인한 일을 하는 자들은 스스로에게 관대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술은 그 관대함을 더욱 증폭시킨다. 그 위험에 우리 모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악해지지 않기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흔히 기술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개발하기 위한 창의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개발된 기술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창의력보다 공감과 상상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 이때의 상상력이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도 현실처럼 인식하고 공감하여 실재를 더 실감 나게 파악하는 능력이다. 내가 보는 동영상 속의 장면 안에서 벌어지는 고통의 실체와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게 도달했는지 애써 상상하려 노력해야 한다. 익명으로 내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들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쓰는 악성 댓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충격이 될지를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실과 가상을 마구 섞어 현실을 왜곡하는 변태적인 자기기만과 다르다. 성적 욕구를 채울 때는 가상을 현실이라 생각하고, 남을 괴롭힐 때는 현실을 가상으로 받아들이는 편리한 습관은 정상적인 상상력일 수 없다.

n번 방 사건의 공범자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상상할 능력이 없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범죄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자 뒤늦게 공포를 느끼며 목숨마저 스스로 끊으려 하는 것은 그동안 사이버 세상에서 몽롱하게 살다가 갑자기 현실이 자기 앞에 구체적인 위협으로 들이닥치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유튜브와 같은 SNS 서비스에서 광고주들이 가짜 뉴스 사이트에 직접 광고하지는 않는다. 모든 광고는 광고 중개 서비스를 통한다. 광고주가 중개업체에 돈을 지불하면, 중개업체는 금액별로 광고를 배치한다. 높은 조회 수가 나오는 사이트일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를 배치하는 식이다. 때문에 가짜 뉴스 같은 자극적 콘텐츠가 돈이 된다.

이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들이 디지털 세상에 태어난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다. 이들은 아날로그 시절에 태어나 디지털 시대로 이민을 온 기성세대와 달리, 디지털 환경에서 물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이다. 문제는 기성세대가 이들에게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공감 능력과 상상력을 키워 주기 힘들다는 점이다. 자기 몸으로 느끼는 고통은 최소화된 반면 영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는 데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해 주는 상상력과 공감력을 길러줄 것인가. 이번 n번 방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놀랄 정도로 어리다는 사실은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급한지를 잘 보여 준다.

이번 사건의 연루자들을 엄벌하고 피해자들을 최대한 구제하며 범죄의 매개가 된 기술적 연결고리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몇몇 악한들의 극악한 범죄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서 있으며 고통을 느끼는 몸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의 의미를 다시 고민하고 급격하게 다가오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필요한 감수성과 윤리적 기준을 모색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피 흘리며 고통당하신 때를 온라인 예배로 기억해야 하는 오늘, 더욱 절박하게 느껴지는 어려운 도전이다.

이 글은 기윤실 좋은 나무(4월 8일)에 게재된 글입니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윙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훌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